

5개 도시 비교 분석으로 살펴본 지방 문화예술 실태

글 이선실 로포라이터

도시와 지방간의 문화 격차는 한국 문화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문화행사의 50% 이상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중앙집중화 현상은 우리 문화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였다. 부산과 대구를 비롯해 광주·대전 등 대도시들이 그나마 지역문화의 맥을 잇고 있었지만, 서울에 비하면 행사수나 질에 있어 턱없이 부족했고 대도시간에도 상당한 격차를 벌이고 있었다.

그나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문화행사가 급증하면서 대도시의 문화행사가 점차 늘어났으며, 1990년대 초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대도시의 문화행사 역시 질적·양적 발전을 이루면서 중앙집중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출범 이후 한국 문화는 또 한 번의 변혁기를 맞았다. 1990년대 초반까지가 양적 발전의 시기였다면, 지방자치제는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산업화를 통한 클래식·대중문화의 이분화 등 한국 문화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질적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이다.

실제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서울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문화는 상당한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5년이 지난 2000년까지도 중앙집중화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방에 비해 대도시의 문화행사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도시 문화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지방자치제 실시 전후 10년간의 자료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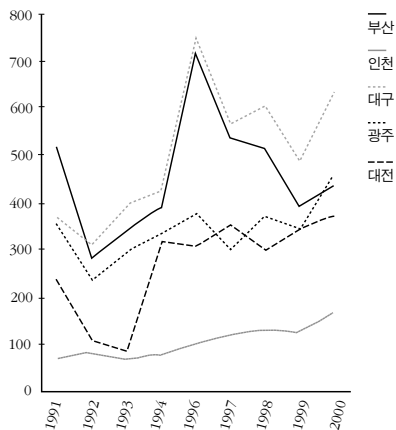
문화행사 장르별 분석

미술전시회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미술전시회의 5개 대도시 개최 건수는 <표 1>과 같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5개 대도시의 미술전시회 점유율은 1991년 28.0%, 1992년 20.4%, 1993년 22.4%, 1994년 28.1%로 30%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도시 전시회 점유율이 30%대를 넘으면서, 미술전시회의 서울 집중화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5개 대도시간의 격차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부산은 총 519건으로 9.4%의 점유율을 보이며, 370건의 대구와



〈그림 1〉 미술전시회 5개 대도시 개최건수



〈그림 2〉 미술전시회 5개 대도시 점유율

354건의 광주에 비해 150여 건 정도 많은 개최 건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2년 이후, 대구의 미술전시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0년간 15개 시도 중 미술전시회를 서울 다음으로 많이 개최한 도시가 되었으며, 부산은 부동의 3위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 광주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미술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의 추격으로 2000년에는, 459건의 광주에 비해 부산은 434건으로 약간 저조하게 나타났다.

대구와 부산은 전통적으로 화랑을 중심으로 한 미술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부산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시 횟수가 감소하는 반면, 대구는 199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개최 건수가 증가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미술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미술 장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천과 대전의 약진이다. 인천은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서 전통적으로 문화활동이 저조한 지역이었다. 〈표 1〉에서 보듯 1994년

까지 전시회가 100건을 넘지 못했고, 총 전시회 대비 전국 점유율은 1%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6년 101건으로 미술전시 횟수 100건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2000년에는 168건, 2.6%로 지방자치제 실시 직전인 1990년대에 비해 15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전 역시 1990년대 초반까지 다른 시도에 비해 문화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의 경우, 15개 시도 중 5~7위의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지방 도시의 미술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결과에 기인한다. 같은 중상위권을 유지하던 광주와 비교하면 1993년까지 100건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직전인 1994년 317건, 점유율 5.8%로 전년에 비해 27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하면서, 이후 5%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5개 대도시는 공통적으로 1996년 미술전시회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부산은 점차 감소세로 돌아서고 다른 지역은 미술전시회

〈표 1〉 미술전시회 5개 대도시 개최 내역

(단위:건)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국	5,521	4,969	5,297	5,489	3,447	5,932	5,745	6,203	5,794	6,351
부산	519	280	345	391	지역별 집계 누락	713	536	515	387	434
인천	66	80	67	78		101	120	132	125	168
대구	370	310	394	424		747	565	603	484	633
광주	354	234	293	333		377	302	370	346	459
대전	236	109	85	317		306	353	295	343	371

가 양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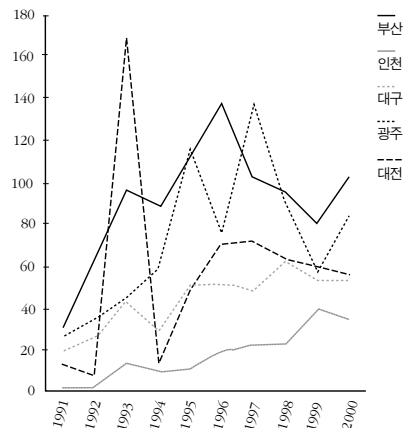
국 악

국악은 1990년대 이후 지방 분산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장르 중 하나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5개 대도시의 국악행사 공통점은, 지방자치제 실시 직후 전년에 비해 비약적인 증가를 나타내다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악행사는 1990년대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5개 대도시의 행사 건수 역시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점유율 면에서 볼 때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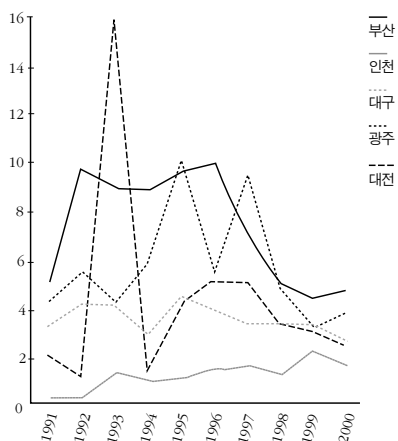
서울, 지방, 대도시를 비교해 볼 때, 5개 대도시의 국악행사 점유율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30% 전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8년 27.2%, 1999년 26.2%, 2000년 27.7%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점유율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산으로, 부산은 1991년 5.0%의 저조한 비율을 보였지만 1992년 이후 국악행사가 증가하면서 9%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지방자치제 실시 직후인 1996년에는 10.0%의 높은 비율



〈그림 3〉 국악행사 5개 대도시 개최건수

을 보였다. 그러나 1997년 7.1%로 급감하면서, 이후 1998년 5.0%, 1999년과 2000년 각각 4.4%, 4.7%로 1990년대 초반에 비해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초반까지 국악행사 개최 건수에서 상위를 유지해 온 대구와 광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구는 1995년까지 4%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지만, 이후 차츰 하락해 2000년에는 2.4%의 낮은 점유율을 보이며 15개 시도 중 11위를 나타냈고, 광주 역시 심한 급락을 보이기는



〈그림 4〉 국악행사 5개 대도시 점유율

했어도 5%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 왔지만, 1998년 이후 점유율이 점차 하락해, 2000년에는 3.8%의 저조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 지역이 1995년 116건, 10.1%와 1997년 137건, 9.5%의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광주비엔날레 개최 연도에 문화행사가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두 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직후 총 행사량은 늘었지만,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악행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인천과 대전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개최 건수나 점유율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과 1992년 고작 2건의 국악행사만을 개최했던 인천은 1993년 14건으로 증가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10건대의 낮은 개최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직후인 1996년 19건으로 72.7%의 성장률을 보였고, 이후 약간씩 증가를 보이고 있다.

대전은 1993년 169건으로 1992년 7건에 비해 무려 24배의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대전엑스포라는 국제적인 행사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해, 1994년에는 13건으로 다시 1.3%의 저조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대전 지역의 국악행사가 그나마 활기를 찾은 것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이다. 1995년 48건, 점유율 4.2%로 1994년에 비해 3배의 성장을 보인 대전의 국악행사는 1996년 다시 71건으로 47.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국악행사가 점차 감소하면서 2000년에는 2.6%의 점유율을 보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인 1994년까지의 개최 건수나 점유율을 감안할 때, 1995년 이후 국악활동이 활발히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국악행사 5개 대도시 개최내역

(단위:건)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국	619	617	1,080	1,002	1,146	1,380	1,440	1,884	1,801	2,192
부산	31	60	97	88	110	138	102	95	80	103
인천	2	2	14	10	11	19	23	23	40	35
대구	20	26	43	29	51	52	48	62	54	53
광주	26	34	45	59	116	75	137	90	58	84
대전	13	7	169	13	48	71	72	63	60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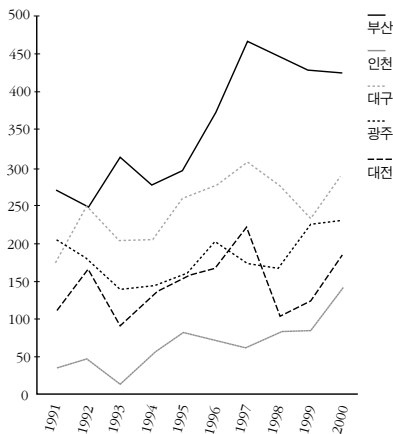
양악

양악은 다섯 분야의 문화예술 행사 중 가장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장르이다. 양악의 경우 전통적으로 대도시를 주무대로 이루어져왔고,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제 실시 직후인 1994년까지 계속되어 왔다. 서울이 50%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이 10%대로 그 뒤를 이었고, 대구가 7~8%, 광주와 대전이 4~6%대로 행사 건수나 점유율이 특별한 해를 제외하고는 순위 변동 없이, 1~5위를 5개 시도가 유지해 왔다. 다만 인천은 타 장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인접 지역의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1%대의 낮은 점유율을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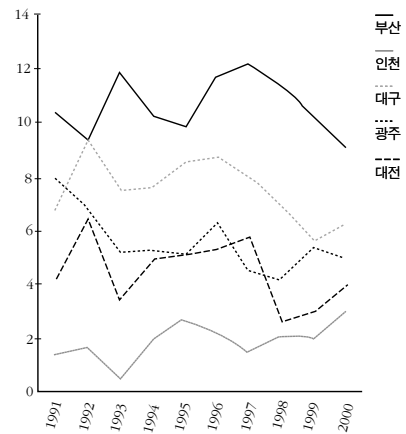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양악은 최상위권과 중상위권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서울 다음으로 양악 개최 건수가 높은 부산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개최 건수가 늘기는 했지만, 이는 전국 총 행사수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점유율은 다소의 증감은 있지만 여전히 10%의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15개 시도 중 양악 개최 건수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대구는 부산 다음으로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개최 건수나 점유율 면에서 부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1년에는 광주에 비해 31건 적은 173건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광주를 따돌리며 200건 이상의 높은 개최 건수를 보여왔다. 지방자치제 원년인 1995년에는 259건으로 전년에 비해 26.3%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1997년까지 계속 기록을 갱신해 갔다. 그러나 1998년과 1999년에 심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점유율 역시 1999년 처음으로 5.6%로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2000년에는 289건, 점유율 6.2%로 다소 만회한 듯이 보이지만 여전히 1990년대 초반의 높은 점유율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광주와 대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제 실시 원년까지 행사 건수 면에서 근소한 차이로 광주가 대전을 앞서며 15개 시도 중 4위를 유지했으며, 대전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경기, 경남 등이 새로운 양악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점유율이 다소 하락하면서 순위도 지방에 비해 중위권으로 밀려났다. 광주는 1997년 4.5%, 1998년 4.2%의 저조한 양상을 보이다가



〈그림 5〉 양악행사 5개 대도시 개최건수



〈그림 6〉 양악행사 5개 대도시 점유율

〈표 3〉 양악행사 5개 대도시 개최 내역

(단위:건)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국	2,578	2,658	2,658	2,696	3,047	3,193	3,832	3,934	4,168	4,628
부산	269	248	315	276	298	372	468	446	427	423
인천	35	46	13	50	83	71	58	81	85	142
대구	173	251	200	205	259	277	308	277	232	289
광주	204	180	138	143	156	201	172	166	225	230
대전	109	168	91	131	155	168	222	101	124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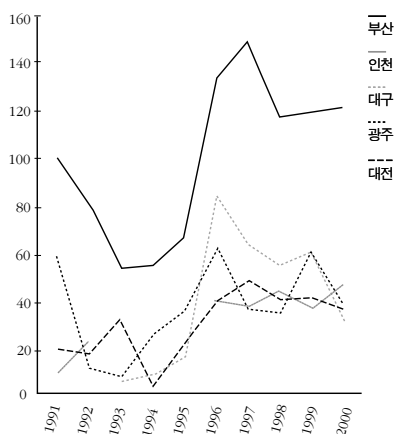
1999년과 2000년에는 다시 5%대를 회복했지만, 경기에 밀려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전은 1997년을 기점으로 행사 건수와 점유율이 감소하면서 15개 시도 중 하위권으로 밀려났고, 1999년과 2000년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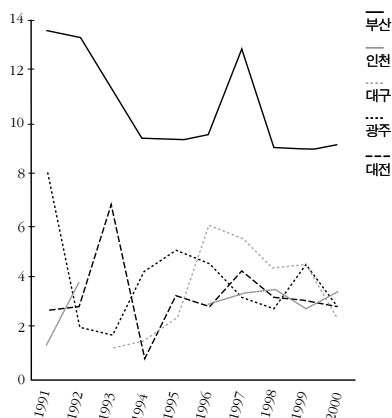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예술문화는 경제성장

을 바탕으로 양적으로 급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연극은 이러한 타 장르의 추세와는 반대로 오히려 양적으로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연극의 위기론으로 이어졌고, 연극계는 고사위기의 연극을 구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소극장 운동과 함께, 지역 분산을 꾀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연극계의 노력은 연극의 중앙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 연극 활성화로 이어졌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연극의 지역 분산화는 대도시 연극의 상대적 감소로 나타났다. 지방 연극의 맹추격



〈그림 7〉 연극공연 5개 대도시 개최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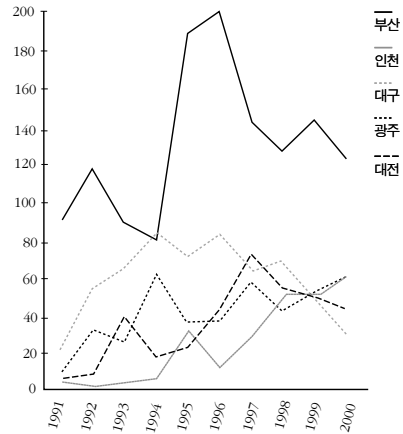


〈그림 8〉 연극공연 5개 대도시 점유율

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여전히 4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던 것에 비해, 대도시 지역은 계속 감소를 보이며 서울 및 지방 대비 5개 대도시의 점유율은 1991년 27.9%에서 1992년 19.1%로 급락했고, 1993년 14.1%, 1994년 15.0%로 문화예술 장르 중 가장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그나마 부산은 제2의 문화도시답게 10%대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경기·강원과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나머지 도시들은 오히려 지방에도 밀려 1990년대에 계속 하위권을 맴돌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인 1996년 대도시 연극은 전국 연극의 총 공연량 성장에 힘입어 5개 대도시 모두 비약적인 성장률을 보였으며, 1990년 초반 20%에도 미치지 못하던 점유율 역시 1996년 이후 20% 이상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 지방 연극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1997년부터는 40% 이상을 상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서울 지역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국악 등 일부 지방 분산이 이루어지는 장르가, 서울은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대도시 지역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연극은 지역 분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무 용

무용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서울이 40% 이



〈그림 9〉 무용행사 5개 대도시 개최건수

상의 점유율을 보이며 중앙집중화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 분야이며, 부산이 10% 이상의 높은 점유율로 15개 시도 중 2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시도는 혼전을 거듭하다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이 차츰 대도시를 추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5개 도시 중 무용 점유율 면에서 약세를 보이던 인천과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대도시의 전국 점유율이 차츰 하락하는 현상에서 기인한다. 부산의 경우 1995년까지 17%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1996년부터 차

〈표 4〉 연극 5개 대도시 공연 내역

(단위:건)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국	741	609	482	593	717	1,406	1,162	1,300	1,349	1,338
부산	101	81	54	55	67	134	150	117	120	122
인천	10	23				41	38	45	37	47
대구	35		6	9	17	85	64	56	61	32
광주	59	12	8	25	36	63	37	35	60	38
대전	20	17	33	4	23	40	49	41	41	37



〈그림 10〉 무용행사 5개 대도시 점유율

춤 감소하기 시작해 2000년에는 8.1%에 머물고 있다. 대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무용의 도시로, 4개의 무용제를 개최하며 부산을 추격, 1994년에는 간발의 차이로 부산을 앞지르고 15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인 1995년부터 행사 건수와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중하위권으로 밀려났고, 2000년에는 2.0%의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제 실시 전까지 대구를 맹추격하던 광주는, 1995년 이후에도 전과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 경남, 충북 등 지역 무용에 밀리면서 중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대도시 중에서도 무용에 약세를 보였던 인천과 대전은 전국 순위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 그러나 두 도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 이전에 비해 양적으로나 점유율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인천은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전국 순위도 대전과 광주를 앞서며 중위권에 진입했다. 반면 대전은 계속 중위권을 유지하면서, 1997년 이후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개 대도시 지역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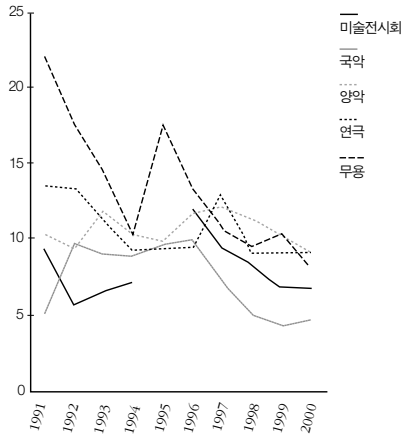
부산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은 문화의 제2도시로 서울 다음으로 많은 행사를 개최해 왔다. 장르별로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전 장르에 걸쳐 전국 총 행사 건수의 10% 정도의 점유율을 보여왔으며, 지역문화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무용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그러나 문화의 중앙집중화 현상이 다소나마 완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부산의 문화예술 점유율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무용의 경우 지방

〈표 5〉 무용 5개 대도시 공연 내역

(단위:건)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국	412	660	626	778	1,080	1,492	1,323	1,333	1,390	1,521
부산	91	117	90	79	190	200	142	126	143	123
인천	5	2	5	6	32	13	28	51	50	61
대구	21	54	65	85	71	83	64	68	50	31
광주	10	32	26	63	36	37	58	42	52	60
대전	6	9	39	18	23	43	72	54	49	43



〈그림 11〉 부산지역 문화예술 장르별 점유율

자치제 실시 원년인 1995년에는 전년대비 점유율 7.4%로 72.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1990년 초반의 점유율을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개최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00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8%대의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많은 무용을 개최하며 제2의 무용의 도시로서 확고부동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연극과 양악 역시 10년간 10%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1990년대 초반 점유율이 다소 감소하다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기점으로 일시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하향 추세를 보이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국악과 미술전시회는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술전시회의 경우 1996년 급속한 성장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5.0%의 낮은 점유율로 출발한 국악은 이후 8~10%대의 점유율을 유지하다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인 1997년부터 양적으로 감소하면서 점유율도 계속 하락해, 1999년 이후에는 처음으로 4%대로 떨어졌다. 〈그림 11〉

부산은 아직 제2의 문화도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타 지역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그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

인천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문화예술 행사 면에서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인천은 수도권 인접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경기와 더불어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4년까지 전 장르에서 1%를 전후한 낮은 점유율을 보이면서 15개 시도 중 최하위권을 맴돌며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연극이 1992년에 3.8%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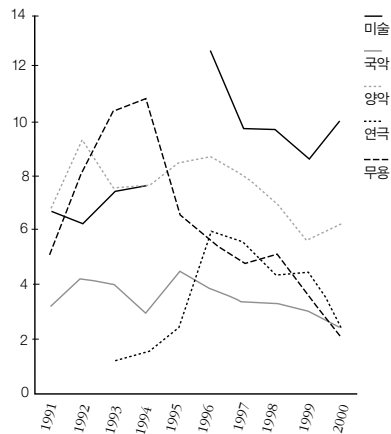
〈표 6〉 부산지역 장르별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미술전시회	9.4	5.6	6.5	7.1		12.0	9.3	8.3	6.7	6.8
국악	5.0	9.7	9.0	8.8	9.6	10.0	7.1	5.0	4.4	4.7
양악	10.4	9.3	11.9	10.2	9.8	11.7	12.2	11.3	10.2	9.1
연극	13.6	13.3	11.2	9.3	9.3	9.5	12.9	9.0	8.9	9.1
무용	22.1	17.7	14.4	10.2	17.6	13.4	10.7	9.5	10.3	8.1



〈그림 12〉 인천 지역 문화예술 장르별 점유율



〈그림 13〉 대구 지역 문화예술 장르별 점유율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인천의 문화예술 풍토는 바뀌었다. 1995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탄생은 수도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신호탄이었고, 오히려 서울권의 문화예술 행사를 분산 유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비록 점유율이나 행사 건수는 다른 시도에 비해 미미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비해서는 대단히 높은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악과 무용의 약진이 돋보이며, 무용의 경우 1998년 3.8%, 1999년 3.6%, 2000년 4.0%로 인천 문화예술의 대표적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그 동안 수도권의 한계로 문화 인프라가 적었던 인천이 1995년 이후 문화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대 구

대구는 서울, 부산 다음으로 전통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이다. 그러나 미술, 양악, 무용이 서울 다음으로 부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2, 3위의 최상위권을 유지하던 것에 비해, 국악은 중위권을, 연극은 오히려 하위권에 맴돌고 있었다.

〈표 7〉 인천 지역 장르별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미술전시회	1.2	1.6	1.3	1.4		1.7	2.1	2.1	2.2	2.6
국악	0.3	0.3	1.3	1.0	1.0	1.4	1.6	1.2	2.2	1.6
양악	1.4	1.7	0.5	1.9	2.7	2.2	1.5	2.1	2.0	3.1
연극	1.3	3.8				2.9	3.3	3.5	2.7	3.4
무용	1.2	0.3	0.8	0.8	3.0	0.9	2.1	3.8	3.6	4.0

〈표 8〉 대구 지역 장르별 점유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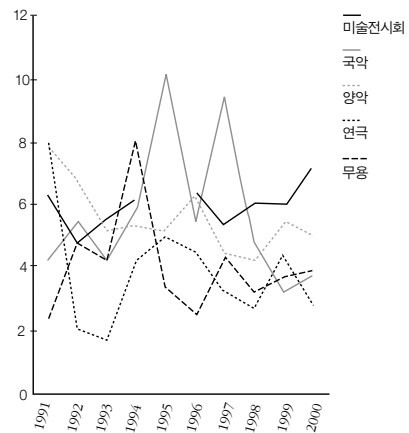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미술전시회	6.7	6.2	7.4	7.7		12.6	9.8	9.7	8.6	10.0
국악	3.2	4.2	4.0	2.9	4.5	3.8	3.3	3.3	3.0	2.4
양악	6.7	9.4	7.5	7.6	8.5	8.7	8.0	7.0	5.6	6.2
연극	4.7		1.2	1.5	2.4	6.0	5.5	4.3	4.5	2.4
무용	5.1	8.2	10.4	10.9	6.6	5.6	4.8	5.1	3.6	2.0

지방자치제는 문화 추세 면에서 대구만의 독특한 지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것은 미술과 양악의 특화다. 〈그림 13〉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 지역의 문화예술은 장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점유율이 차츰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를 기점으로 한 1995년과 1996년 미술, 양악, 국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미술과 양악은 타 장르에 비해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오히려 대구 지역의 특화 예술 분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술은 2000년 10.0%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대구를 바짝 추격하던 부산을 무려 200여 건 차이로 따돌려, 부동의 2위 자리를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양악은 1999년 5.6%까지 하락한 점유율을 2000년에 6.2%로 다소 만회하였지만, 여전히 15개 시도 중 3위에 머물고 있다.

광 주

광주는 문화예술 행사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1976년 이후 대구를 바짝 추격하며, 예향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주도해 갔다. 연극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장르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점유율도 지역 격차가 워낙 심한 무용을 제외하고는 5% 이상의 높은 수치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림 14〉 광주 지역 문화예술 장르별 점유율

1990년대 초반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방자치제를 기점으로 일부 분야에서 급성장을 이루었으나 이후 다시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특이한 것은 1995년의 국악과 1997년의 국악, 무용의 점유율이다. 이는 1995년과 1997년 광주비엔날레의 개최로 지역 축제와 행사가 증가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광주비엔날레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미술전시회는 1999년까지 그다지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2000년에 7.2%의 점유율로 부산을 따돌리고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서울, 대구에 이어 3위

〈표 9〉 광주 지역 장르별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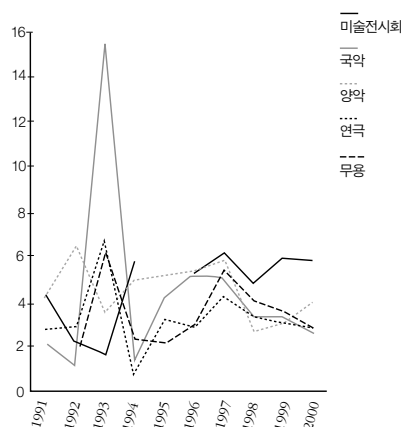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미술전시회	6.4	4.7	5.5	6.1		6.4	5.3	6.0	6.0	7.2
국악	4.2	5.5	4.2	5.9	10.1	5.4	9.5	4.8	3.2	3.8
양악	7.9	6.8	5.2	5.3	5.1	6.3	4.5	4.2	5.4	5.0
연극	8.0	2.0	1.7	4.2	5.0	4.5	3.2	2.7	4.4	2.8
무용	2.4	4.8	4.2	8.1	3.3	2.5	4.4	3.2	3.7	3.9

를 차지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비엔날레라는 대규모 행사로 인해 오히려 비엔날레가 열리던 해에는 지역 전시회가 위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역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1995년을 제외하고 1996년에는 6.4%로 예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비엔날레가 열리던 1997년에는 5.3%로 예년에 비해 전시회의 점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비엔날레는 예향의 도시 광주가 특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행사이며, 이러한 행사는 타 문화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비엔날레와 관련해 점유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타 장르의 경우,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국제적인 행사의 부대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술과 더불어 양악 역시 1999년부터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의 점유율을 약간이나마 회복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장르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보인다.

대전

대전 지역은 대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미술전시회와 양악, 무용은 서울·부산·대구·광주와 함께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연극과 국악은 지방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점유율을 보이며 15개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



〈그림 15〉 대전 지역 문화예술 장르별 점유율

렀다. 다만 1993년에 국악, 연극, 무용의 수치가 급작스럽게 증가한 것은, 대전엑스포의 영향으로 엑스포 기간 동안 상설무대가 마련되면서 공연량이 증가한 것뿐이다. 공연예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오히려 미술전시회가 예년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 것도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4년에는 다시 예전과 같은 양상으로 돌아갔고, 1993년에 85건으로 저조했던 미술전시회는 오히려 317건으로 272.9%의 성장률을 보였고, 양악도 미술전시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악과 연극, 무용은 오히려 그 이전 수준에도 미

〈표 10〉 대전 지역 장르별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미술전시회	4.3	2.2	1.6	5.8		5.2	6.1	4.8	5.9	5.8
국악	2.1	1.1	15.6	1.3	4.2	5.1	5.0	3.3	3.3	2.6
양악	4.2	6.5	3.4	4.9	5.1	5.3	5.8	2.6	3.0	4.0
연극	2.7	2.8	6.8	0.7	3.2	2.8	4.2	3.2	3.0	2.8
무용	1.5	1.4	6.2	2.3	2.1	2.9	5.4	4.0	3.5	2.8

치지 못하는 재미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원년인 1995년에는 무용을 제외하고는 다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국악과 무용은 각각 1996, 97년과 1997, 98년에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전 지역은 전반적으로 미술전시회와 국악, 무용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양악과 연극은 지방자치제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상으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의 5대 대도시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울산 역시 1998년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최근에는 6대 대도시로 따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1997년 이전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제외시켰음을 밝혀둔다.

5대 대도시의 문화예술 행사를 분석해 볼 때, 지방자치제는 대도시의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양적으로는 전국 총 행사의 성장률과 대비해 볼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점유율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개최수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해 오던 부산, 대구, 광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분야별로도 점유율이 높았던 분야

일수록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인천, 대전 등 문화예술 활동이 저조하던 지역은 양적으로나 점유율이 지방자치제 이전에 비해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대도시 문화에 미친 영향은 단지 행사 건수나 점유율 등의 양적인 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방자치제는 각 도시의 문화지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거의 전 장르에 걸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순을 유지하던 문화 분포도가 지방자치제를 기점으로 해체되면서 각 도시마다 특화된 예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미술은 대구와 광주가 부산을 추월했으며, 인천은 무용이 특히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다. 대전 역시 미술과 양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대도시의 문화예술 행사가 줄어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가 급증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가장 선호되고 활발한 예술 분야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의 지역 분산은 물론이고, 특징적인 문화예술에 기반한 도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 문화예술 개최 건수는 〈장르별 분석〉 참조.

* 문화예술 점유율은 〈5개 대도시 지역별 분석〉 참조.

* 참고자료 : 『문예연감』 1992~2001년, 『문화예술』 1999년 8~12월 〈문화예술 20세기 정리와 21세기 전망〉, 『문화예술』 2002년 3월 〈특별기획 : 지방자치제 이후의 지역문화 현황〉